

일본경제리뷰 No.18_09

< Special Issue >

아베총리의 3선과 경제적 과제

Contents

<Special Issue>	1
I. 한일경제동향	4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	6
2. 경제정책	10
3. 기업전략	14
III. KJCF&KJE News	17
IV. 이달의 추천자료	19
V. 한일경제지표	20



〈 Special Issue 〉 아베 총리의 3선과 경제적 과제

□ 아베 정권의 유지기반과 경기회복

- 9월 20일 아베총리가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여 2021년까지 3번째 임기에 들어가게 됨
 -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2번째로 긴 경기회복이 이제까지 정권을 지탱해왔음
-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5년 9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아베정권을 지탱해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2번째로 긴 경기회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
□ 해외 악재의 속출

- 그러나 세계경제의 앞날을 보면, 미중무역전쟁 등 감속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, 이제까지 장기정권에의 뒷바람이 되어왔던 경제가 역풍으로 반전될지도 모르는 상황임
- 일본은 현재 금융, 재정 모두 정책대응의 여지가 제한된 만큼, 경제운영은 난항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
- 2008년 리먼쇼크 이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(FRB)와 유럽중앙은행(ECB)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하였음
- 이후 아베정권은 미국경기가 본격적인 회복레드에 들어간 이후 시작되었으며, 그동안 트럼프 정권의 대형감세도 10년째 계속되는 미국경기의 확대에 기여했음
- 물론 미국 FRB는 9월 25-26일 올해 3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큼
 - 일본경제신문(2018.9.21.)은 미국의 0.25%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.3%정도 감소한다는 일본 농림중금중합연구소의 전망에 근거하여 순환적으로도 미국경기는 축소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
- 미국이 금리인상을 정지하면 미일간 금리차 확대를 예상한 엔매도·달러매입세도 둔화될지 모름

- 아베정권이 발족했던 2012년 12월에 달러당 80엔대 중반이었던 엔화환율은 한때 125엔대까지 엔저가 진행, 현재도 112엔 정도의 수준임
-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2017년도 일본기업의 경상이익은 2012년도 대비 1.7배 증가했고 이러한 실적확대를 지탱해온 엔저의 효과가 약해질 우려가 있음
- 아베정권 출범 시 7%대 후반의 성장을 계속해온 중국경제도 다를 바 없음
- 시진핑 지도부가 과잉채무 압축에 주력한 점 등으로 최근 성장률은 6%대로 둔화됐으며 투자에 제동이 걸려 경기의 감속감이 강해지고 있음
- 나아가 미중간 무역마찰 격화가 세계경제 전체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음
- 일본경제신문은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,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부품 등의 공급망을 통하여 아시아 신흥국에도 악영향을 미쳐, 세계경제의 흐름을 꺾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
- 미국경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가격 상승으로 개인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임
- OECD는 9월 20일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2018년, 2019년 모두 3.7%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음
- 지난 5월 시점에서의 전망치보다 각각 0.1포인트, 0.2포인트 하향 수정함
- 신흥국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자금유출이 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회복은 피크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임

□ 정책대응의 한계

- 문제는 해외로부터의 역풍에 감내하기 위한 정책의 처방전이 현재 일본에 부족하다는 점임
- 일본은행은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어 경기가 꺾여도 대응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것임
- 또 모든 완화책은 부작용이 효과를 상회하고 있다는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지적도 있음
- 즉 정부가 국채의 증발로 재정이 출동되고 일본은행이 국채의 매입량을 늘린다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된다는 지적임

□ 3선후 이베노믹스의 3대 과제

-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성장전략의 속도 등은 부족한 실정임
 - 일본경제신문(2018.9.21.)은 부담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하여 재정재건을 실시하면서 성장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

□ 사회보장 : 급부억제 성역 제거

- 첫째로 추진해야할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며, 2025년에는 소위 단카이의 세대가 전원 75세 이상이 되어 의료비 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
 - 아베 정권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를 연간 5,000억 엔 정도로 억제해왔음
 - 그러나 이제까지의 억제책은 고가의 약가 인하나 고소득 회사원의 부담대체가 중심으로 급부의 억제에 중점을 두었다고는 말할 수 없음
- 게이오 대학의 도이다케로(土居丈朗) 교수에 의하면, 2020년대 사회보장이나 세제에 대하여 3년 내에 결론을 내고 3년째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
 - 의료분야에서는 재무성이 75세 이상의 자기부담을 현행 10%에서 20%로 상향조정하는 안 등을 제안하고 있음

□ 소비세 인상 : 더 이상의 연기는 불허

- 재정재건은 소비세를 10% 인상을 두번 연기하고 재정재건에 일단락을 짓지 못했던 점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
 - 10% 인상으로는 사회보장의 경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음
-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 소비세인상에 대하여 자동차와 주택 등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대책을 내놓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음
 - 확실히 증세를 계기로 경기가 꺾이게 되면 10% 이후에 대한 논의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대책으로 포퓰리즘식의 남발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함

□ 성장전략 : 고용의 유동화 급선무

- 성장전략에서는 경제계의 요망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완화 등에도 착수했다는 일정 정도의 평가가 있음

- 일본은행의 이(異)차원완화를 기틀로 한 엔고의 시정이나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등에 의해 6중고 등 일본경제의 족쇄는 개선되었음
- 그러나 개혁의 속도는 빠르지 않음
 - 시간이 아니고 성과로 임금을 지불하는 탈시간급제도는 2015년 4월에 관련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시행은 2019년 4월 예정임
 - 기업들의 요망이 강한 재량노동제 확대는 보류되었음
 - 이정도의 속도감으로는 기업들이 세계경쟁에서 패퇴한다는 지적도 있음
- 다이와 연구소에 의하면, 정사원의 유동성이 낮으면 기업들은 경기악화를 우려하여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
 - 기득권익을 차단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임

1. 한일 경제 동향

□ 무역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- 따라서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의존도는 4.7%, 수입의 대일의존도는 11.5%
 - 한편,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.2%
- '18.8월 對日무역적자는 1,812백만 달러로 전월의 확대에서 다시 축소로 반전
- 對日수출은 2,421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4.7% 감소
 - 10대 대일수출품목의 대부분이 감소한 가운데 산업용전자제품의 對日수출 감소폭이 -20.4%로 가장 큼

- 對日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광물성연료가 24.9%로 증가폭이 가장 큼 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- 對日수입도 4,233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7.6% 감소
- 10대 對日수입 품목 중 수송기계의 對日수입 감소폭이 35.1%로 가장 큰 반면, 對日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이 7.3%로 증가폭이 가장 큼

< 2018년 8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541	17.5	-2.3	2,421	14.9	-4.7	20,185	15.5
對日수입	4,579	2.7	3.1	4,233	-6.7	-7.6	36,847	2.1
무역수지	-2,038	-11.3	10.6	-1,812	-25.4	-10.1	-16,662	-10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'18.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, 2분기 연속 증가
- '18.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504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37.0% 증가
- 한편 '18.7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315억 엔으로 전기대비 4.3% 감소
- '18.7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.7%

< 일본인 직접투자 추이 >

	2017	2018 1분기	2018 2분기	2018.6월	2018.7월
일본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1,862 (90.1)	368 (135.9)	504 (37.0)	-	-
전체 외국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22,970 (7.8)	4,934 (-47.3)	10,820 (119.3)	-	-
일본의 對韓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993 (3.3)	1,038 (4.5)	329 (-16.3)	315(-4.3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203,157 (247.6)	145,925 (-29.3)	56,447 (66.9)	44,329 (-21.5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- 전라남도가 남해화학(주) 관계자와 공동으로 일본에 투자유치단을 파견, 2개 기업과 여수국가산단에 500억 원을 들여 실리카 생산 공장과 완효성 비료공장을 건립하는 한일합작 투자를 확정(2018.8.27.News1)
-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실리카 전문 제조기업 A사는 남해화학과의 합작으로 300억 원을 투자해 고품질 실리카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됨
- 도쿄에 본사를 둔 특수비료 제조기업인 B사는 남해화학과의 공동으로 200억 원을 투자, 한 번 사용으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완효성 비료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3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

□ 인적교류

- ‘18.8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36.7% 증가
 - 8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315,025명으로 7월보다 36.7% 증가
 -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
- ‘18.8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, 0.3% 증가
 -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593,900명으로 7월보다 2.3% 감소
 - 오사카 북부의 지진과 7월중 호우의 영향이 컸음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2분기, 내수주도로 연율 3%의 고성장

- 일본 내각부가 9월 10일 발표한 2018년 2분기(4-6월기) GDP 수정치는 실질 전기 대비 0.7% 증가, 연율 환산으로 3.0% 증가함
- 이는 1차 속보치(연율 1.9%증가)를 크게 상회한 수치로서 성장률이 연율 3%를 넘었던 것은 2016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임

-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1차 속보단계로부터 대폭 확대된 것이 GDP의 상향수정에 크게 기여함
 - 2분기의 내외수의 기여도를 보면, 내수가 0.9% 기여하여 내수주도의 성장을 보였음
 - 내수의 전기대비로 본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이래 13분기 만에 가장 큰 수치인 가운데 외수는 0.1% 기여했음
- 내수 중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3.1%증가로, 1차 속보치의 1.3%를 크게 상회함
 - 일본 재무성이 9월 3일 발표한 4-6월기 법인기업통계에서 설비투자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약 11년 만에 가장 컸음
 - 운수·우편과 전기, 화학의 설비투자가 견실한 것으로 보였음
- GDP의 60%를 점하는 개인소비는 0.7%로 1차 속보치와 비슷한 수준으로, 2018년 1분기의 0.2%감소에서 플러스성장으로 반전됨
 - 증가율은 2017년 2분기(0.8%증가)이래 1년 만에 높은 수준임. 자동차가 견인하고 음식서비스도 소폭 상향수정에 기여함

< 2018년 2분기 GDP성장률 내역 >

		2017	2017			2018	
			2/4	3/4	4/4	1/4	2/4p)
GDP	전기비	1.7	0.5	0.6	0.2	-0.2	0.7
	연율환산	1.7	2.0	2.3	0.9	-0.9	3.0
개인소비		1.0	0.8	-0.7	0.3	-0.2	0.7
주택투자		2.7	1.3	-1.4	-3.0	-2.5	-2.4
설비투자		2.9	0.2	1.3	0.9	0.7	3.1
정부소비		0.2	0.4	0.1	0.1	0.0	0.2
공공투자		1.2	5.3	-2.8	-0.6	-0.4	0.0
수출		6.7	0.2	2.1	2.1	0.6	0.2
수입		3.4	1.9	-1.5	3.3	0.2	0.9

자료: 내각부, p)는 개정치

□ 경기회복세 유지

-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
 - 수출과 생산 활동은 호우의 영향도 있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

- 앞으로 일본경제는 재해의 영향이 일순하는 가운데,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수출과 설비투자를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다만, 7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대비 0.6포인트 하락한 116.3으로 3개월 연속 하락
 - 자동차 출하의 악화와 대미 철강수출의 감소가 내구소비재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재출하지수의 저하로 이어짐
 -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22개월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 판단을 유지
- 7월의 실질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.1% 증가
 - 자동차구입비가 증가한 외에 무더위로 인한 환자의 증가로 의료서비스의 지출이 증가
-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7월 기계수주액은 석유·석탄업, 화학 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11.0% 증가
 - 그러나 펄프와 자동차산업의 설비투자는 감소
 - 「일본은행단관(短観)」(2018년 6월)등에 의하면, 기업들이 설비부족감을 느껴 2018년도 산업 설비투자계획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7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.2% 감소, 전년대비로는 2.2% 증가
 - 자동차, 기계프레스, 철강의 생산이 감소
- 7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보다 0.1%포인트 높은 2.5%
 - 일손부족에 의한 구인 증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
 - 유효구인배율도 전월보다 0.01포인트 높은 1.63배로 197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 - 구직자의 감소가 주된 영향으로,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구인수가 증가
- 8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2.1% 감소
 - EU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5.3% 감소로 부진

- 앞으로도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전망
- 8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과 같은 전년동월대비 0.9% 상승
 - 전기료와 휘발유가격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전월비로는 0.3% 상승
 - 일본은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셈치고는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 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□ 무역수지 흑자 반전

- 8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전월에 이어 4,446억 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2,120억 엔 적자에서 1,810억 엔 적자로 감소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,027억 엔에서 4,558억 엔으로 감소
 -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로 이어짐
- 8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0.2% 감소한 6조 6,916억 엔
 - 5대 수출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철강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5.5%로 가장 큰 반면, 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자동차의 수출 감소폭이 -5.7%로 가장 큼(지표 4)
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,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0.8%로 가장 큰 반면 EU에 대한 수출감소폭이 -6.2%로 가장 큼(지표 5)
 - 한국에 대한 수출감소폭은 -0.5% 전월보다 축소
- 8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.4% 증가한 7조 1,362억 엔
 - 5대 수입 품목 중,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,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수입증가폭이 24.3%로 가장 큼(지표 6)
 - 주요 지역별로는 호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전월대비 14.2%로 가장 큰 반면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-11.2%로 가장 큼(지표 7)

< 2018년 8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 출	6.7	3.9	-5.6	6.7	6.6	-0.2	53.4	-5.4
수 입	7.0	14.6	11.1	7.1	15.4	1.4	53.6	-8.4
수 지	-0.2	-	-	-0.4	-	100.0	-0.1	-

자료 : 재무성

- 8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11.1엔으로 전월대비 0.3% 엔고
 - 그러나 최근에는 112엔대까지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데, 이는 미중무역마찰에 대한 경계감이 악화되고 있는데 더하여, 미국의 장기금리가 3%대까지 상승함에 따라 엔매도·달러매입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임
 - 對원화환율은 100엔당 1,010엔으로 0.2% 원저(엔고)
- 7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21.5% 감소한 4조 4,329억 엔
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4.3% 감소한 315억 엔
- 7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66.7% 증가한 2조 97억 엔
 - 해외로부터의 배당금 및 투자수익은 호조를 보였으나 유가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데 기인함

2. 경제정책

□ 경제산업성, 태양광에 대하여 육성중심에서 경쟁중심체제로 전환

- 경제산업성은 9월12일 심의회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조정가격매입제도(FIT)의 재검토 방안을 제시함
 - 사업용 태양광발전의 원칙 모두에 입찰제를 도입, 빠르면 2022년에 KW당 매입가격을 2018년도의 절반 이하인 8엔정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정책의 중점을 이제까지의 고가매입에 의한 육성에서 비용중시의 경쟁중심으로 전환함

- 가격하락에 의해 신규진입이 부진하면 태양광발전의 보급에 황신호가 켜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
- FIT는 경제산업성 가정과 기업을 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자로 인정하고 발전한 전력을 10-20년의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로서, 입찰에서는 정부가 상한 가격을 결정하고 매전가격을 공모
- 상한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가격인하 압력이 걸리게 됨
 - 태양광에서는 2,000KW 이상의 대규모발전만 채용했으나, 이를 사업용에 해당하는 50KW이상 모두에 확대할 방침임
 - 가정용에 해당하는 10KW 미만은 입찰제는 아니라 2015-2027년도에 11엔으로 절반 이하까지 낮춤
 -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육상·양상 모두 조기에 입찰제로 할 방침임
- 입찰제도는 유럽에서는 널리 채용되고 있음. 독일과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 등이 도입하고 있음
-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의 영향으로, 2012년에 FIT를 시작했으나, 앞으로는 보다 경쟁을 촉진, 코스트 효율 면에서 뛰어난 재생에너지 보급과 사업자의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임
- 그 배경에는 일본의 태양광 발전에 드는 비용이 유럽의 약 2배나 높은 점임
 - 태양광패널 등의 설비조달비용과 공사비용, 운전유지비 그 어느것도 부담이 큼
 - 유럽에 비하여 설치에 적합한 평지가 적은 불리점도 지적되나, 중간마진이 높은 점 등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어, 코스트절감노력이 충분히 침투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음
- 경제산업성은 종래 FIT에 의한 고가매입이 사업자의 코스트 절감 노력을 지연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
 - 심의회에서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(게이단렌)가 FIT로 매입가격을 설정한 결과, 가격에 맞추어 코스트가 설정되어왔다고 지적

- FIT의 매입비용의 일부는 전기요금에 할증시키고 있으며, 2018년도의 할증액은 2.4조 엔으로 앞으로 더욱 커짐. 개인의 부담증가에 더하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
- 올 여름 각의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관하여 자립한 주력 전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목표로 하면서도 우대책의 FIT를 폐지한 후를 내다본 코스트 구조의 실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함

□ 일본은행, 출구전략 물가 2% 달성후

- 일본은행이 9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강력한 금융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함
-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완화의 출구정책 시기를 언급한데 대하여 물가목표 달성에 전력을 기울일 자세를 강조함
- 출구전략은 어디까지나 2%를 달성한 후라는 생각을 비치면서, 2018년 7월에 결정한 금융완화 수정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약간 성급하다고 지적함
- 미국발 무역마찰은 세계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
- 출구전략을 둘러싸고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, 2021년까지 임기인 3선을 겨냥한 아베 총리가 9월 14일 토론회에서 어떻게든 임기 중에 해보겠다고 했음
- 판단은 구로다 총재에게 위임하면서도 고용개선을 강조했음
- 금융시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물가목표에 대한 집착이 종래보다 약해진 것처럼 보여져 관심이 높아져 있음
- 한편, 구로다 총재는 계속 2%의 물가안정목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도록 완화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, 조기 출구전략에 관한 관측을 불식함
-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일본정부와의 공동성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, 종래의 정책적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생각을 내비침
- 일본은행은 목표달성시기가 2021년도 이후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은 현재의 완화책을 강하게 계속할 방침임

-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 의하면, 2% 물가 실현은 장애물이 높다고 지적함
 - 그러나 일본은행은 2018년 7월에 당분간 현재의 매우 낮은 장단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도입하고 있어 조기완화 축소는 어려운 실정임
- 한편 구로다 총재는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5년여에 고용과 기업수익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함
 - 일본은행 내에서는 금융완화의 장기화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음
 - 구로다 총재는 금융완화를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
 - 5년 전 취임당시와 같이 물가목표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음
- 7월의 회의에서 금융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을 결정했음
 - 장기금리의 유도 목표를 유연하게 하여 현재 0% 수준에서 약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국채시장의 거래회복을 겨냥했음
 -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의 앙케이트 조사에서 시장기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언급, 시장기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8월 중순 이후는 다시 거래가 침체되고 있음
 - 구로다 총재는 정책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약간 성급하다고 하고 시간을 두고 점검할 생각을 보임
- 물가목표에 대한 장애물 또한 높으며 경기는 회복을 계속하고 있으나, 현재 물가 상승률이 가속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
 -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외에, 세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등 무역마찰이 확대되고 있음
- 구로다 총재는 무역마찰에 관하여, 매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지적
 - 더욱이 기업과 가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, 당사국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다국 간 무역관계를 통하여 세계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

3. 기업전략


□ 일본기업, 미중간 무역마찰에 중국생산을 재검토

-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일본기업들이 생산지의 변경 등으로 영향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됨
 - 아사히가세이와 고마쓰는 대미 수출용 제품과 부품의 중국생산을 재검토하고 있음
 - 그러나 생산의 대체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사례는 한정되어 있고 미국 당국에 예외 취급을 인정받는 절차 등 다양한 수단으로의 대응이 확대되고 있음
- 미국은 9월 23일 중국에 대한 제제관세의 제 2탄을 발동하고, 중국도 보복을 단행함
 - 미국은 3월에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은 철강 등에 대한 추가관세도 도입하고,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
- 국경을 넘어 복잡한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
- 경제산업성의 해외현지법인조사에 의하면, 일본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액(2017년도) 중 내수판매와 일본으로의 판매 제외한 제 3국으로의 판매액은 약 2,180억 달러에 이름
 - 이 중 중국만으로 260억달러를 점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공급망을 지탱하고 있음
 -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은 부품 등 중간재가 60%를 점하고, 수출한 소재나 부품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수출되는 사례도 있음
- 관세인상에 대한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사히가세이는 대미수출용 수지원료의 생산을 중국의 거점에서 일본의 미즈시마(水島)제조소로 대체함
 - 기어 등 자동차부품에 사용되는 수지로 미국의 두 번째 對중국 제재 대상품목의 하나임
- 동 제품은 이전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, 원료조달 등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음
 - 또한 분쟁 등에 대비하여 고객으로부터는 사전에 품질 등의 승인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품목이 공표되고 나서 1개월 정도로 대체가능함

- 고마쓰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유압쇼벨 분야에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던 일부 용접 부품 등을 미국과 일본, 멕시코 등으로 이전함
 -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으로의 역수입용 부품을 미국으로 돌리고 부족분은 수입하고 있으며 일련의 대책으로 연간 40억엔의 비용이 증가됨
 - 고마쓰는 경기변동에 맞추어 세계의 거점에서 유연하게 부품을 유통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음
- 아이리스오야마는 대미 수출용 공기청정기와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의 생산을 2019년에 완성할 예정인 한국공장에 이전함
 - 현재로서는 관세인상의 대상과 후보품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, 앞으로 더욱 대상이 확대되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
- 아사히가세이 등은 기존 공장과 공급망을 활용하여 영향을 회피하고 있지만 신규투자를 수반한 대응은 장애물이 높음
 - 무역전쟁이 앞으로 어느 정도 확대되고 얼마나 장기간 계속될 것인가 관망하기 어렵기 때문임
 - 예를 들면, 자동차공장을 새로 설립하는데 1,000억 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부품 메이커들도 제휴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움
- 미국에서는 대체조달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도 있음
 - 일본정공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베어링의 재료인 수입 강재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있음
 - 그러나 동 제도를 둘러싸고는 인원부족 때문에 심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대응수단이 한정된 기업에서는 관세지불에 응하는 사례도 많음
-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품 생산을 이관하는 경우, 일본기업은 중국당국의 심증도 신경을 쓰고 있음
 - 어느 산업기계메이커의 중국현지법인 CEO는 수출이 줄어들 전망을 제멋대로 공표하면 지방정부 간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함
 - 이 메이커도 일부 기종의 생산을 일본으로 이전하였으나 상세하게는 공표하고 있지 않음

□ 르네사스, 최대금액으로 미국 반도체업체 IDT 매수

- 일본의 대형 반도체업체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메이커, 인테그레이티드·디바이스테크놀로지(IDT)을 매수할 방침으로 굳히고 최종교섭에 들어감
 - 매수액은 60억 달러 규모로 보이며, 일본의 반도체메이커 매수액으로서는 과거 최대급임
 - IDT는 통신용 반도체에 강점이 있어 르네사스는 자동운전 등에 필요한 반도체의 설계·개발에 손을 댐
- IDT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되고 있으며,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5,400억엔으로 르네사스의 1/3 규모임. 데이터센터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음
 - 공장을 갖지않은 이른바 웨블리스메이커로 통신용반도체의 설계·개발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
- 르네사스의 2018년 3월기 매출액은 8억 4,276억 달러, 영업이익 1억 1,091만 달러로 2015년에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독일기업을 매수한 바 있음
- 르네사스는 차대용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로,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방대한 데이터 통신가 필요함
 - 자동차업체들은 커넥티드카(연결되는 차)의 기술개발에서도 분투하고 있어 르네사스는 IDT가 가진 통신용반도체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임
- 르네사스는 IDT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완전자회사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
 - 상장기업을 위한 TOB(주식공개매입)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져, 주가에 일정 프리미엄을 할증시킨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함
 - 매수가 완료되면 IDT는 나스닥시장을 상장폐지하게 될 전망이다
- 르네사스는 NEC일렉트로닉스와 미쯔비시전기와 히타치제작소의 반도체를 통합한 르네사스테크놀로지가 2010년에 합병하여 탄생된 기업임
 -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주력인 나하공장 등이 피해를 입어 경영위기에 빠진 후, 2013년에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도요타자동차 등 거래처로부터 출자를 받아 경영재건에 추진했음

- 그동안 인원 및 생산거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오던 중 반도체수요가 증가하여 2015년 3월기에 최종흑자로 전환함
 - 한때는 70%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혁신기구는 보유주 매각을 추진하여 현재는 30%까지 출자비율이 낮아짐
- 세계적으로는 대형 반도체업체의 합종연형이 진행되고 있음
 - 차대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수위의 네덜란드 NXP세미컨덕터즈는 미국 프리스케일을 2015년에 약 2조 엔에 매수함
 - 르네사스는 아날로그 반도체 등에 강한 미국 인터실을 2017년에 약 3,200억 엔에 매수했음
 - 이번 IDT의 매수로 차대용반도체 기술을 강화하여 글로벌전개를 가속화시킬 계획임. 

III. KJCF & KJE News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

한일산업기술FAIR 2018 개최

일시 : 2018년 9월 19일

장소 : KINTEX(경기도 고양시)

규모 : 한일 약 200명

내용 : 한일협력상 시상식, 한일부품소재상담회, 한일베어링 바이어초청상담회, 일본기업 취업상담회,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, 일본취업환경설명회, 한일 자동차 부품 상담회·구매전략세미나

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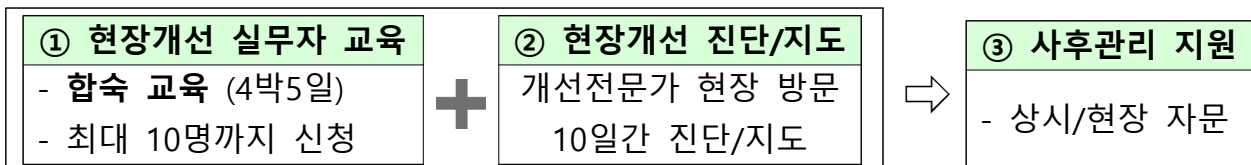
주관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일한산업기술 협력재단



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모집 안내

1) 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

- 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- 내용 :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『①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』과 뿌리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『② 현장개선 진단/지도』 『③ 사후관리 지원』으로 구성



○ 사업 특징 :

- 현장작업자 교육 후 향후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활동 가능
 ※코스트 다운, 품질개선, 불량률 감소, 공정흐름개선, 물류개선 효과
- 모노즈쿠리(통합적 관리)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조성

○ 신청기간 : 2018.10.8.(금)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489 참조

2) 주한일본인 초청, 100분 토론회 참가 모집

- 일시 : 2018. 10. 12(금) 14:00 ~ 16:30
- 장소 :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 *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 출구 도보 5분
- 주제 : 일본시장 한 발 더 깊게 ~일본인의 시각에서~
- 주최 : (사)한일경제협회(KJE), (사)한국무역협회(KITA)
- 프로그램

시 간	구분	내 용
13:30~14:00	등록	장소 :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14:00~14:10	개회인사	(사)한국무역협회
14:10~14:30	발제	서석승 (사)한일경제협회 부회장 “일본시장 한 발 더 깊게 !”
14:30~16:10	100분토론	좌장 : 서석승 (사)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패널 ▶ 하토리 타카시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▶ 와카이 슈지 한국넛켄(주) 사장 ▶ 타케다 하지무 아사히신문 특파원 ▶ 나카지마 하루미 (주)글로벌금융판매 인스타 FC ▶ 정재학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
16:10~16:30	질의응답	청중과의 질의응답

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kje.or.kr/index.php/user_activity/notice_view/0/203 참조

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100년 기업의 생각, 조지루시 마호빙』 2018-09-20
- 『2018년 경제재정백서』 2018-09-18
- 『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, JTB』 2018-09-13
- 『연합의 힘, 이토햄 요네큐 홀딩스』 2018-09-11
- 『2018년도 모노즈쿠리 백서』 2018-09-06
- 『2018년판 일본통상백서』 2018-09-04
- 『백화점이 시작한 보육원, J.프런트리테일링』 2018-08-30
- 『성공의 반복, 유니참』 2018-08-23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2050년까지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에 관하여』 경제산업성, 2018년 9월22일
http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2050_keizai/pdf/001_04_00.pdf
- 『3기를 맞는 아베노믹스의 바람직한 경제정책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8년 9월20일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viewpoint/pdf/10688.pdf>
- 『IMD 세계경쟁력년감으로 본 일본의 경쟁력』 미쓰비시종합연구소, 2018년 9월20일
https://www.mri.co.jp/opinion/column/trend/trend_20180919.html
- 『이노베이션 경영의 실현에 관한 조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8년 9월7일
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389.pdf
- 『미중 무역전쟁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악영향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2018년 9월6일
http://www.nri.com/~media/PDF/jp/opinion/teiki/kinyu_itf/2018/itf_201809_3.pdf
- 『일본의 디지털화 정도에 관한 국제비교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8년 9월6일
<http://www.itl.or.jp/kanan113/113abe.pdf>
- 『최근 일본의 대EU직접투자의 특징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2018년 9월6일
<http://www.itl.or.jp/kanan113/113masuda.pdf>
- 『서플라이체인을 통한 환율의 파급효과와 기업실적』 경제산업연구소, 2018년 9월7일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8e058.pdf>
- 『스핀오프 활용에 관한 지침』 경제산업성, 2018년 9월1일
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8/08/20180831001/20180831001.html>
- 『일본기업의 對중국투자, 13년만에 본격화』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, 2018년 8월29일
http://www.canon-igs.org/column/network/20180828_5218.html
- 『여행·관광산업의 경제적효과에 관한 조사연구』 국토교통성, 2018년 8월23일
<http://www.mlit.go.jp/common/001248884.pdf>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8년 8월 對日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2,541	17.5	-2.3	2,421	14.9	-4.7	20,185	15.5
1	광물성연료	342	68.9	-17.6	427	115.5	24.9	3,114	69.9
2	철강제품	357	9.4	9.8	312	-4.9	-12.6	2,730	5.0
3	석유화학제품	207	53.3	1.5	201	65.5	-2.9	1,515	40.8
4	정밀화학제품	184	35.8	6.4	159	14.2	-13.6	1,335	30.7
5	전자부품	158	28.9	-6.5	139	5.9	-12.0	1,230	10.6
6	산업용전자제품	142	30.7	7.6	113	-13.2	-20.4	1,015	3.9
7	수송기계	119	2.3	-0.8	95	-25.5	-20.2	932	-11.9
8	농산물	91	4.0	-5.2	95	9.7	4.4	746	8.4
9	기계요소공구·금형	90	-3.6	4.7	86	-2.0	-4.4	700	-4.2
10	산업기계	81	-8.9	6.6	80	34.5	-1.2	606	16.3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8년 8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4,579	2.7	3.1	4,233	-6.7	-7.6	36,847	2.1
1	철강제품	521	16.2	-14.4	547	8.0	5.0	4,575	13.6
2	전자부품	528	-1.3	-0.9	545	-0.3	3.2	4,248	1.1
3	정밀화학제품	418	28.8	10.3	400	-4.8	-4.3	3,178	16.2
4	정밀기계	476	-33.1	-5.9	398	-36.1	-16.4	5,035	-8.1
5	석유화학제품	317	0.8	26.8	340	5.1	7.3	2,633	-11.4
6	산업용전자제품	301	24.7	3.1	241	-2.2	-20.0	2,194	12.1
7	기초산업기계	259	1.4	4.4	205	-14.4	-20.8	1,904	-10.3
8	플라스틱제품	186	-7.0	2.8	189	-7.8	1.6	1,484	-3.6
9	수송기계	273	6.4	36.5	177	-21.7	-35.1	1,789	1.8
10	산업기계	208	2.0	3.5	165	-10.4	-20.7	1,469	-0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8					
			1/4	2/4	5월	6월	7월	8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-0.6	3.0p)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115.8	116.9	116.3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-	-	-0.2	-1.8	-0.2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-	-	-3.9	-1.2	0.1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-1.1	-	-	-3.7	-8.8	11.0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-	-	0.2	0.0	0.3	0.3
	전년비	0.5	-	-	0.7	0.8	0.8	0.9
실업률(%)		2.8	-	-	2.2	2.4	2.5	-
수출액(조엔)		78.3	6.7	20.2	6.3	7.1	6.7	6.7
수입액(조엔)		75.4	6.7	19.4	6.9	6.3	7.0	7.1
무역수지(조엔)		2.9	-0.02	0.8	-0.6	0.7	-0.2	-0.4
경상수지(조엔)		22.0	5.8	4.9	1.9	1.2	2.0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20.3	14.6	3.4	5.6	4.4	-
환율	달러	112.1	108.1	109.1	109.7	110.3	111.4	111.1
	원화(100엔)	1,009	990	989	981	993	1,008	1,010
금리(10년물,%)		0.052	0.059	0.04	0.030	0.030	0.060	0.110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22,367	22,341	22,590	22,563	22,309	22,494

주: p)는 개정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4) 2018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엔,%)

순위	품목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9,936	-2.8	-3.9	9,369	5.3	-5.7	79,528	6.2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664	8.0	2.1	3,687	4.2	0.6	27,118	5.0
3	자동차부품	3,360	0.8	-4.3	3,179	3.8	-5.4	26,132	3.5
4	철강	2,854	11.2	-3.6	3,012	13.4	5.5	22,908	5.8
5	원동기	2,405	2.0	-6.3	2,383	16.8	-0.9	19,175	8.1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8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3,553	11.9	-3.7	13,661	12.1	0.8	103,767	10.8
2	미국	12,506	-5.2	-3.2	12,459	5.3	-0.4	99,195	1.7
3	ASEAN	10,796	7.9	-0.5	10,369	4.7	-4.0	82,681	8.3
4	EU	7,668	6.4	-3.4	7,192	7.1	-6.2	60,978	8.4
5	한국	4,686	-1.9	-3.3	4,664	-3.1	-0.5	38,675	-1.3
6	대만	3,954	4.4	-0.3	3,980	11.4	0.7	30,796	4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8년 8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7,635	40.3	33.1	8,975	59.6	17.6	56,735	22.1
2	액화천연가스	3,854	16.7	24.4	4,446	28.6	15.4	30,431	13.0
3	의류·동부속품	2,707	13.1	24.7	3,366	5.1	24.3	20,803	4.9
4	석탄	2,315	13.3	11.9	2,706	35.3	16.9	18,078	5.6
5	반도체 등 전 자부품	2,523	4.0	11.3	2,289	-4.0	-9.3	18,224	1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8년 8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7월			2018.8월			2018.1-8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5,672	6.7	7.8	15,471	5.9	-1.3	121,796	3.6
2	ASEAN	10,306	6.3	4.8	10,742	11.9	4.2	81,508	7.8
3	EU	8,896	29.1	16.3	8,066	6.5	-9.3	63,704	12.8
4	미국	7,479	11.0	6.6	7,901	21.5	5.6	58,126	8.4
5	호주	4,316	22.2	17.4	4,927	24.2	14.2	32,880	12.7
7	한국	3,016	12.5	3.8	2,677	6.5	-11.2	23,202	13.2

자료 : 일본 재무성